

안녕하세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 공동편집장 팔매(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입니다. 그간 뉴스레터 및 계간지를 통해 여러 번 기본소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번호부터는 계간지 국내동향코너를 ‘팔매통신’이라는 코너로 전환했습니다. 보다 발로 뛰며, 현장감이 넘치는 국내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지금’ 기본소득 담론들이 어디서? 어떻게? 왜? 발화되었는지를 잘 적어내려 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의 편린, 그리고 독자들이 느끼는 정동들의 만남이 기본소득 저 너머의 세상으로 건너갈 다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 ‘팔매통신’과 함께 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관부!

100시간의 선물, 부산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팔매통신의 첫 방문지는 ‘부산’입니다. 부산형사회연대기금에서 마련한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2030 청년, 기본소득을 묻다: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정책토론회’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민간기금(노사)-은행-방송사가 힘을 합쳐 성사되었으며, 14명의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7개월(2021년 6월-12월)간 지급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충분성이 확보된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모습이 궁금해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 MBC가 6부작의 다큐로 청년들과 기본소득의 만남을 면면히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다큐멘터리를 살피고, 청년들의 수기를 읽으며 이 토론회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철학적-학술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지지가 있어야 정책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과 언론,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한 목소리로 ‘기본소득 서둘러 실시하라’고 외치게 만들었을까요?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는 인원이 10명으로 줄었지만, 동일한 금액과 기간으로 2차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연구소가 실험효과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기대됩니다.) 그럼, 4월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100시간의 선물 기본소득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기본소득 프로젝트 갈무리, 정책토론회 열려

청년,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돈, 신뢰를 낳는 돈”

전문가 및 시민단체 “기본소득은 권리, 공유부 철학 기반한 실험-정책 이어나갈 것”

“기본소득 꼭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 쫓아는 청년들’ 행사에서 입을 떼 첫 주자는 다동이 아빠 박영우씨다. 그는 이번 기본소득프로젝트를 통해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7개월 동안 받았다. 사실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곤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그런 건 ‘운’ 좋은 사람이나 당첨되는 로또같은 일이었으니 말이다. 지금껏 맨주먹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건설일,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말이다. 자신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써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 당장 자식들의 분유, 기저귀값을 벌기 위해 금전적인 것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 그에게 기본소득은 생존의 언어였다. 박씨는 “서울에는 동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권현진씨의 말도 이어진다. 당장 돈이 없다 보니, 뭔가를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다. 그 와중, 기본소득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냈다고 말한다. 그는 “돈이 돈을 불러온다지만, 기본이 될 돈도 없다. 당장 전시전을 연다고 해도 참가비, 준비물 등등이 필요하다”며 “결국 꿈을 좇으려면 알바에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알바에 시달리다 보면 꿈을 잃는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게 기본소득”이라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청년정책도 알아봤지만, 대부분 업종-가구소득-지역제한 등이 있는데다가 사용 이후에도 각종 결과서류를 요청받는 등 복잡한 탓에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격투기선수 김중관씨, 패션디자이너 강연주씨, 래퍼 강동건씨 등 다른 참가자들도 유사한 말을 전했다. 늘어나는 청년정책들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며,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담아낼 만큼 다양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달랠까. 청년들은 기본소득이 ‘100시간의 선물’ 같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청년 시기, 마음만 급했다. 언저리에 서서 식비, 주거비, 작업실 비용, 물감, 캔버스, 원자재 등을 마련하기 위해 꿈과 생계 그 힘겨운 줄타기를 이어가던 찰나, 기본소득은 자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무도 반갑게 믿어주는 돈이었다. 청년들은 이 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꿈을 위한 노동시간을 늘렸다. 평소 고마웠던 이들에게 마음만이 아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

격투기 선수인 김중관씨는 “제가 형들에게 받은 게 많아 늘 동생들에게 베풀고 싶었는데, 그간 제



생활이 어려우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기본소득이 생겨서 동생들 옷도 사주고, 밥도 많이 사주니깐 너무 마음이 뿌듯했다”고 말했다. 다동이 아빠 박영우씨는 자녀들과 가족여행을 갔던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인다. 그는 “생계에 쫓기다보니 시간이 그냥 흘러가 변변한 추억조차 없었다”며 “(기본소득으로) 짬라인을 타러 갔는데, 지금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랬다. 각자의 삶이 고달파 앞만 보며 달려왔던 시간과 달리, 기본소득은 서로-돌봄의 장을 만들어냈다. 그 속에서 발생한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추억, 기본소득이 만들어 낸 시간은 참가자들에게 깊이깊이 남았다.

이렇듯 실험은 이상에 머물던 기본소득을 일상으로 끌고 내려왔다. 모든 정책은 상상에 불과했던 법,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자리잡는다면 어떨까. 행복한 상상이 이어졌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다른 ‘시간’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시간, 지인들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 바닷가를 거닐며 산책할 수 있는 시간,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놀지를 궁리하는 시간 등등이다. 박영우 씨는 “상상만 해도 흐뭇해진다”며 “12시간 일하던 걸 10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은 아이들과 논다든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시간-가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개별적인 소득원을 갖기 이전에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는 권현진씨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청년들이 논다고 하는데, 사실 그 논다는 기준이 더 궁금하다. 내가 하는 그림도 누가 보면 놓고 먹는다고 할 수 있지만 내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며 “누가 누구의 시간을 평가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각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자기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본소득

이야말로 인간을 믿어주는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늘 열심히 달려도 늘 열악한 삶에 놓인 이들, 꿈을 좇아가기에 삶의 무게가 버거운 이들,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들, 추억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갔다. 이처럼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기본소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경험에 꽃피는 시간이었다. 부산 지역 내 학계 및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 역시 청년들의 증언에 큰 공감을 표했다. 기본소득의 정책화 필요성을 보다 깊이 절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기본소득이 ‘고용수치’, ‘경제성장률’ 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행복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MBC 전성호 PD는 “기본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점이 끌린다”며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것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서희원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험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 기본소득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기본소득실험이 부산의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의대 유동철 교수는 “사회는 ‘사람을 꿈꾸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경제수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방식의 이야기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철학은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돌린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부산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공유부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전장화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담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 이사장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할 때 거대담론을 얼마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다뤘을때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다”며 “방송을 보면서, 청년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이 든다. 부의 성장이 우리 삶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그리고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